

“지역혁신 플랫폼...에너지밸리 핵심동력 역할 할 것”

이현빈 한전공대설립단장 인터뷰

지역 생산 유발 효과 1조521억, 7761명 일자리 창출 기대
개교까지 일정 빠듯...정부 차원 지원·특별법 제정 절실
美 올린공대·伊 산타나 대학 롤 모델...작지만 강한 대학 표방

이현빈 한전공대설립단장은 22일 “대학 설립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전공대의 광주·전남 생산 유발효과가 1조521억원에 이르는 만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에너지밸리 핵심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2022년 개교까지 물리적 여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정”이라며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전남도의 협조와 정부차원의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단장과 일문일답.

—한전공대의 롤 모델과 미래 지향적 목표는.
▲334명의 학생을 두고 있는 미국의 올린공대와 690명이 공부하는 이탈리아 산타나 대학을 예로 들고 싶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꼽히는 이들 대학은 정원 1000명을 계획하고 있는 한전공대와 결을 함께 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기존 경직적 교육체계를 뛰어넘어 미래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산학협력형 대학의 ‘롤 모델’로는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이 있다.

—기존 교육체계가 아닌 수업과 강의가 없는 프로젝트 해결 방식의 학사 운영이 된다고 한다. 시행착오는 없을지.
▲한전공대가 지향하는 문제중심학습(PBL)은 단순히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있지 않다. 학생 스스로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를 아는’ 인지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PBL+’를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중심학습과 융합될 교육콘텐츠는 미군이 도입한 토의방법론인 ‘AAR’(After Action Review)로 기존 주입식·암기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학습효과를 높일 대안이 될 것이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인재들이 사회적 성찰과 집단지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생활이 결합된 연수원형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기초공학 분야에서 교수·학습시간 일대일 심화학습 및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지성을 공유하는 학습공동체 구축이 가능하다. —적자 기업의 대학 설립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많다.



▲최근 한전의 재무실적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저조하나, 재무구조는 글로벌 유틸리티, 국내 주요 공기업 등과 비교하면 건실한 편이다.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는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한전과 정부·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전남도·나주시는 1670억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등 총 36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무부처는 ‘최소 지자체 수준’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원규모는 전체 예산의 5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31년까지 설립·운영에 드는 총 예산 1조6112억원으로 전망되지만 대학 자체수입, 민간기부 등을 고려하면 한전의 부담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공대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광주·전남의 생산 유발효과는 1조521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7761명의 일자리 창출과 378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포함된다. 한전공대는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에너지밸리가 세계적 에너지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데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급기술과 전문인력 공급, 기업 협력 등 클러스터 거점대학 역할 수행을 통해 광주·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2022년 개교 목표 한전공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향후 진행 과정은.
▲올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돌입한다. 먼저 교원을 선발하고 교사 착공에 들어가며 개교 준비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다. 2021년까지 대학설립 인가를 마치고 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2022년 1단계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교까지 물리적 여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 등을 보면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백년가계 이어 명문소공인제 도입

중기부, 올해 100곳 선정
자금 지원 금리 인하 등 혜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백년가계에 이어 장인정신을 보유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 명문소공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한 분야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중기부는 경영환경·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엔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는 생산설비 교체·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상공인특화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 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물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

업 선정 때 가점이 부여된다.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지고, 홍보영상 제작·송출도 지원된다. 명문소공인 지정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단체도 지역 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실증사업 추진

한전, 광주 41가구 등 대상

전기소비가 적은 야간에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는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광주지역 41가구 등 전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계량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적용

된 남구 진월삼익세라믹3차 41가구가 참여한다. 이들 참여가구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여름 4시간, 겨울 3시간) 34가구와 집중형(여름 2시간, 겨울 2시간) 7가구로 나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최대한 한전·고객

의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계량시스템인 ‘AMI’ 보급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1인 가구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소득, 가구원 수, 사용 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추가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MUDEUNG PARK HOTEL & RESORT | 호텔무등파크

새롭게 리뉴얼된 객실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여유를 느껴보세요

호텔과 레저, 휴양시설이 한 곳에

- 무등산을 품은 자연 환경
- 모던하고 쾌적한 객실
- 가족 모두를 위한 부대시설
- 품격있는 스카이라운지
- 10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
- 각종 행사를 위한 다양한 연회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14-10
문의 062-226-0011 www.hotelmudeungpark.co.kr



오는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2019 유니온 아트페어’에서 삼성전자와 이희준 작가가 협업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냉장고’를 배경으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예술이 되다

광주서 생산...신진작가 전시회 서울 ‘유니온 아트페어’ 참가

광주에서 만드는 삼성전자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가 신진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작품과 만난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2019 유니온 아트페어’에 비스포크를 전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코랄·엘로우·화이트·민트 등 비스포크의 다채로운 패널로 피에트 몬드리안 작품을 연상시키는 연출을 해 주목을 받았다. 또 이희준 작가와 협업을 통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냉장고’도 선보였다. 이 작가는 도시풍경을 추상적인 회화로 표현한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데 이번 비스포크 냉장고에 이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목시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니온 아트페어는 신진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대중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대미술축제로 올해는 작가 219명이 참가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교류회 성료

LG이노텍·뉴모텍 등 60여곳 참여

광주·전남지역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교류회와 물·공기산업 관련 제품 품평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스타트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교류회 및 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보달청, 에너지

밸리기술개발원 등을 비롯해 LG이노텍, 대한공조, 뉴모텍 등 대·중소기업 부품소재 협력사, 연구기관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 60여 곳 80여 명이 참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새로운 흐름이 광주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부품소재산업의 진정한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도복권 (제87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7	18	22	23	43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16,607,188	12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5,776,192	75
3	5개 숫자일치					1,584,317	2,167
4	4개 숫자일치					50,000	109,806
5	3개 숫자일치					5,000	1,867,270